

전남 중부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신

이명흠 장흥군수

건강·생태·문화 웰빙 郡으로

이명흠 장흥군수는 “장흥은 이제 건강 휴양도시, 생태도시, 문화 도시로서 사람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웰빙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져온 군정의 기본과 장흥의 중장기 비전인 ‘JC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장흥의 중흥기를 열어 가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이 군수는 “장흥~제주를 잇는 노력항에 오는 5월 ‘제 2오렌지호’를 띄워 제주관광의 명실상부한 관문으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나’ 등의 관광지 기반조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는 돈 버는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북부지역은 표고, 북분자, 햇개 등 생야 특작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남부지역은 딸기, 파프리카, 비파 등 원예단지 위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로하스타운’ 1단계 입주

이 군수는 “선진국에서 건강, 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블루우선’ 분야로 떠오르는 말(馬)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종마 생산기지 조성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복지군정,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 이양~장흥 간 4차선 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기 확충, 군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열린 행정 구현 등을 약속했다.

이 군수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열린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무원이 편하면 군민이 힘들고, 공무원이 힘들면 군민이 편하다”며 “군민을 최우선으로 봉사정신이 앞장서겠다”고 올 한 해 군정방향 의지를 밝혔다.

이 군수는 2011년의 군정 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성장 장흥 ▲녹색 휴양 관광의 중심지 명품장흥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지 웰빙장흥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건강장흥 ▲전남의 지리까지 장흥의 중흥기를 제시했다.

해당산단 조성 박차

우선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될 장흥 해당산단입지 조성 및 ‘로하스타운’ 1차 시범지구 완공, 제주관광 관문인 노력항을 해양 물류기지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해당산단입지는 택지기반을 마무리한 후 현재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33개 기업 외에도 유망기업을 유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한 안양면 기산리 일원 70만평에 민간개발방식으로 레저·휴양·소득시설이 결합해 추진되는 ‘로하스타운’ 1단계 13세대 시범지구를 올 안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서해안 김 황백화 확산 품질·가격 하락 ‘비상’

지난해 연말부터 확산하는 최근 고군산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김 양식 어장의 김염색 탈색현상(황백화 현상)으로 지역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6일 선유도와 무녀도 어민들에 따르면 주로 수온이 올라가는 3월이나 일부 양식장에서 나타났던 황백화 현상이 올해는 지난달 초부터 발생해 선유도와 무녀도는 물론 인근 장자도, 신시도, 개야도 등지로 번지고 있다.

ha로 퍼져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은색을 띠어야 할 김의 색깔이 누렇게 변해 상품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채취하는 물김의 양도 줄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만원 하던 물김 한 포대(50kg)의 가격은 최근 2만5000원대로 폭 떨어진 상태다. 선유도 어민 이성만씨는 “황백화 현상이 이렇게 심하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며 “요즘 새벽 4시부터 나와 차디찬 바다에서 물김을 채취하고 있지만 3분의 1 가격도 받지 못해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 군정 20대 사업 선정 중점 관리

강인형 순창군수가 군정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 20대 주요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이달부터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 20대 주요사업은 인재양성의 산실 육천인재숙, 온천개발, 공동주택건설 유지, 강천산 임도신설 및 조경 등 공약사업 5건, 마무리대상사업 9건, 새롭게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6건 등이다. 강 군수는 지난 11일 군정 영상회의실에서 신현승 부군수, 해당실과소원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각 사업 담당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날 보고회는 해당 부서장이 사업현황, 금주 추진상황, 다음주 추진계획, 고려사항, 대책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군수는 “많은 사업들 중 우선 20대 사업을 선정해서 챙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라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보고를 탈피해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보고가 이뤄져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앞바다인 고군산군도에서 물김 생산이 한창이다. 선유도와 무녀도 등에서 채취한 물김이 어선에 실려와 군산 신시도 선착장에 내려지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조류 바이오연구센터와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품질센터는 최근 고군산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백화 현상 원인에 대해 서해안의 해류변화 및 밀활하지 못한 조류소통, 김 성장이 활발한 시기에 적은 감수량에 의한 영양결핍으로 생리적인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김 염색이 탈락되는 현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영양염 공급을 위한 시비 영양제 처리 등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는 해당 부서장이 사업현황, 금주 추진상황, 다음주 추진계획, 고려사항, 대책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군수는 “많은 사업들 중 우선 20대 사업을 선정해서 챙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라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보고를 탈피해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보고가 이뤄져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해당 부서장이 사업현황, 금주 추진상황, 다음주 추진계획, 고려사항, 대책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강 군수는 “많은 사업들 중 우선 20대 사업을 선정해서 챙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라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보고를 탈피해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보고가 이뤄져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전자 법률도서관’ 서비스

익산시는 날로 증가하는 소송사건 및 법률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로앤비 ‘전자 법률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익산시는 최근 (주)로앤비와 협약 체결해 ▲법령정보 현황 4700건 ▲연혁 7만3000건 ▲판례정보 16만 건 ▲행정자료 11만 건 ▲서식정보 8만 건 등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로앤비 ‘전자 법률도서관’ 서비스는 방대한 법률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구축하고 클릭 한 번으로 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법무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및



“방학엔 학교 대신 독서교실” 강진군도서관(관장 최정열)은 지난 11~14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옛이야기 들려주기, 독서 골든벨, 바른말 고은말, 종이접기, 엄마랑 아빠랑 경제교실 등으로 진행됐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방만한 인력관리 ‘말뚝’

총액 인건비 초과...연말 연가보상비 9억 지급 못해

나주시가 인력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해 행정안전부가 규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돼 연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를 산정, 해당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행정부가 기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돼 연말 전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9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삭감했다. 나주시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게 된 이유로 직원들의 고령화 등 타 자치단체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선 3기와 4기에 무기계약

직 직원 등이 대거 늘어나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예산상 불이익(페널티)을 우려해 나주시 개청 이래 최초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50%밖에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나주시의 경우 민선 3기와 4기인 지난 2002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무기계약직 90명을 비롯해 기간제 근무자를 100여 명이 대거 채용, 민선 5기에 들어서 정실예외에 의한 밀실 채용 의혹이 불거지는 등 말뚝이 일었다. 이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정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정규직 직원의 퇴직 등 자연 감소인원을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한 뒤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A(7급) 공무원은 “그동안 업무성

격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대책 없이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정규직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만큼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며 “올해에는 행안부를 방문하여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해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주시의 경우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규직 직원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그동안 직원으로 운영해 왔었던 각종 시설 등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으로 행사 경비 충당”

장흥 부산면발전위 모범선례

대다수 지자체를 비롯한 읍·면 단위들이 주민 출연금을 통해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장흥군 한 면단위가 보상금을 기금으로 조성, 모든 행사의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해 선례를 보이고 있다. 17개 마을 1670명이 거주하는 장흥군 부산면(면장 노희규)은 2009년 7월부터 재단법인 부산면 발전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부산면은 지난 2007년에 협의회로 여기는 쓰레기 소각장설치와 관련된 13억 여원을 주민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 보상금을 놓고 면 변역회와 사회단체 등 주민들간에 “가구별 배당을 하자”, “기금으로 만들자” 등 사용논란을 벌인 끝에 전역을 면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사무소는 지난해 ▲4월 면민의 날 소요경비 1000만원 ▲경로잔치 500만원 ▲마을 효도관광 600만원 ▲소년소녀가장 500만원 ▲사망 장제비용 420만원 등을 지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화순 나드리 노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 교육 ‘우수’

화순군 나드리 노인복지관(관장 김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우수 실습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은 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전문교육이다. 나드리 노인복지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전국 우수실습기관 13개 중 가장 높은 평점으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보였다. /중부취재본부=정운기기자 unsu@

전북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8777억

도, 올 농정목표 5대 전략 261개 사업 추진

전북도는 올해 농정목표를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도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고부가 식품산업육성 ▲농어가 소득안정 ▲활력있는 농어촌개발 ▲생산기반 및 농어촌 생활환경 확충 등 5대 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261개 사업에 8777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업 경쟁력 확보>=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산업 안정화를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를 6000ha까지 확대하는 쌀수급 안정대책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수요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 ▲청정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농어업인 교육강화 등을 추진한다. 수산자원 확충을 위해 인공어초·바다목장 284ha 조성, 인공어초 어장 관리 2176ha, 수산종묘 3100만마리 방류사업도 벌인다.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국가 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을

비롯해 지역 대표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활성화, 가공제품 개발, 기능성 검증,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9개소를 육성한다. <농어가 소득안정>=중소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만 6세이하 농업인 자녀 영유아에 대해 월 4만 1000원~276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족재해보험 가입비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11개 품목에서 올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쌀소득 고정지불과 친환경 농업지불, 조건부 리저리 지불, 경관보전 지불 등 다양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불금으로 1218억원을 지원한다. <활력있는 농어촌개발>=마을 공동체형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자립형 마을 35개소를 비롯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4개소 ▲해안경관공원·산책로 등 해안마을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1개소 등을 조성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원마을 7개지구와 젊은 귀농·귀촌 인력유치를 위한 농어촌 뉴타운 200세대를 분양한다.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해 농어촌 테마공원 6개소,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에 366억원을 투자한다. <농업 생산기반 및 농촌 생활환경 확충>=삼승 침수지역 배수개선과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 확충에 830억원을 투자하고, 농촌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어촌 종합개발 39개 권역 개발에 896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국 12개 브랜드중 중 5개 브랜드를 석권하고, 우수축산물 브랜드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활력화를 최우선시하는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임실 ‘농업인 교육’ 연중 실시

郡, 구제역 종료 되면 실용 위주 추진

임실군은 구제역 확산에 따라 12월부터 오는 29일까지 계획했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연중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2000

여명 이상이 교육에 참여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새해농사 설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이었지만 올해는 구제역 확산여파로 교육 연기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군은 구제역 상황이 종료되면 ▲전략작목, 품목별 농업인 상실교육 ▲여름철 영농환경 교육 ▲찾아가는 농업인 현장교육 ▲농업인 단체 교육 등을 연중 교육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구제역 상황이 끝난 후 실시하게 될 교육은 더욱 철저하고, 내실있게 준비해 농업인의 새로운 영농지식 함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서은정기자 seo@